

Food 에세이

밥 상

김 기 명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요새는 단단하고 질긴 재질로 포장된 중포장, 소포장 단위로 마켓에서 쌀을 사는 시대이다. 그것도 청결미라고 하여 잘 씻겨져 있는 쌀을. 쌀을 모아놓은 단지를 신주단지 같이 모셔 놓았던 예전에 비해 요새의 쌀이란 매우 쉽게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쉽게 살 수 있는 대상이다. 여하튼 쌀에서 밥까지 가는 동안, 예전에는 지금에 비해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을 통하여 수고를 더하게 된다.

‘쌀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지금은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예전 벌이가 쉽지 않고 박봉 속에 가족을 꾸려가야 했던 세대에겐 쉽게 있었던 말이다. 그만큼 밥을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복받은 일이고 그러다보니 안방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는 시간은 그만큼 경건한 시간이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두손을 모아 올릴 기독교의 가정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밥을 대하고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숟가락을 들 수 있게 해주는 지금의 상황이 고마운 것이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쌀 한 톨을 위하여 고되게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기특한 자세는 아니었더라도 그 밥을 먹는 자리만큼은 언제나 어린 나에게도 경건했었다.

아버님이 숟가락을 드시고 국을 한번 맛보시고는 “자들자”라는 말씀이 떨어져서야 우리들은 밥을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부는 잘하냐, 학교에 애들하고는 잘 지내냐, 선생님 말씀은 잘 듣냐는 말을 중간중간에 물어보시고 자녀의 근황을 파악하셨다. 그것이 사춘기를 접어드는 시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아버님이 그저 습관처럼 건성으로 물어보시겠거니 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지나긴 여정의 시작 전에 아버님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건성으로 슬쩍 물어보시며 내 대답을 초조히 기다리셨던 것을 꽤나 나이가 들어서야 알 수 있었다. 귀찮은 표정을 하면서 건성처럼 들리는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시원한 대답 한번 잘 듣지 못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걱정하셨을 것이다.

온돌방 위주로 살던 예전에는 식탁이란 것이 따로 없었고 밥상이란 것이 있었다. 그 위에 밥, 국, 찌개와 반찬 그리고 수저가 가족 수 만큼 놓여지게 되면 가족들이 모두 도란도란 그리 크지 않은 밥상 주위에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따뜻한 국물과 밥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늦게

오는 일원이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하게 된다. 따뜻하게 방금 지어져 담겨진 밥을 제때 못먹고 늦게서야 귀가하게 되면 어머니는 혼을 내시곤 했다. 말씀으로는 밥을 두 번 차리게 한다는 말씀이지만 속마음은 손수 방금 담아낸 밥공기를 먹지 않고 허기지게 돌아다니는 자식이 걱정되어 하시는 말씀이었을 게다. 밥상은 밥상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혈육을 먹거리로써 하나의 끈으로 이어주는 도구이다. “한술밥을 먹은 사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나 친하나를 나타내는 표현 이상으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내가 젊은 시절에도 그랬고, 내가 지금 늙어가는 시절에도 언제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구세대의 그것을 모르고 구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취직을 잘 하기 위해” 다니는 대학생활에 고생하는 학생들의 어깨를 붙잡아 돌리고 무슨 잔소리를 하기에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요만큼의 여유도 주질 않는다. 돈을 부모님에게 타면서 잠시 눈치는 보이겠으나 그래도 나름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사는 대학생상이 아니다. 자식이고 가장이고 모두 돈에 대해서는 눈치가 보이게 마련이기에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푼 안되는 용돈벌이라도 하면 오히려 마치 벼슬인냥 큰소리가 땡땡 나온다. 그렇다. 요새는 혈연의 끈이 밥상이 아니라 돈으로 얹혀있나 보다. 요새는 가장이고 애들까지도 힘든 시기에 누구하나 누구에게 고마워하지도 혹은 걱정하지도 않는다. 밥상이 아닌 식탁에는 가족이지만 한사람 한사람 다른 시간에 너무나도 편한 조리기구들로 각자 밥을 챙겨 먹는다. 아침이라고 같이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 이들과 상담할 때마다 이들은 매우 외롭다는 느낌을 갖는다. 집안 어느 누구도 이들의 학업실력도 취직상담도 아무 것도 해줄 사람이 없는 이들이 80% 이상은 된다. 기말고사 결시로 성적을 낼 즈음까지도 연락이 없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겨우겨우 알아내어 전화해 대책을 논의하자 하니 오히려 바쁘다고 약속시간을 자신이 정하기도 하는가 하면, 과제물 제출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 내겠다고 전화가 오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려하니 과제를 그래서 받겠냐 말겠냐만 묻고는 대답만

듣고 내가 끓기도 전에 전화를 내려놓는 학생도 있다. 이런 푸념을 친한 교수님이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허공에 날려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밥상머리교육이 안되어서 그래...”라는 말씀이셨다. 어찌면 밥상이란 단순히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는 도구가 아닌 교육의 장소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명이 발전되고

너무나 편하게 먹거리를 이용하는 세대는 오히려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감성적인 먹거리 문화를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2분도 안되어 딱딱한 밥이 되는 햇반 이상으로 중요하다.